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49년
2020년 1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4년 제 242 호

총기 49년 경자년(庚子年) 범공 종령 범어

선(善)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용맹정진



종령 범공 대종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와 교도 가정에 부처님의 상서로운 서광이 널리 비추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는 가정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평화와 자비가 넘쳐나고, 고난과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써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에 기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야 합니다. 자비심은 발고여락(拔苦與樂)이라 하여 다른 이를 기쁘게 하고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며,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임과 동시에 상대를 자비로써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심과 보리심을 일언(一言)하야 이타심이라 하며, 그러한 행을 이타행이라 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들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는 수행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용맹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첫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시라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증오와 원망심은 악(惡)의 가장 큰 씨앗입니다. 남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本性)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

은 나의 선(善)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더욱 선(善)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한 해의 실천서원으로 삼아 정진해 나간다면 불국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복전(福田)을 일구는 일대불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고 좋은 날이오, 달마다 기쁘고 행복한 달, 한 해가 되시기를 발원하면서 모든 불자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옵마니반메후.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 불교총지중 종령 범공 합장

총기 49년 통리원장 신년사

초심과 본심으로 불국정토 만들자

불자 여러분

기해년이 가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지나간 한 해와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를 바로 보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의 실태에 대해,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8만4천 법문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초심(初心)과 본심(本心)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미래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진언행자에게 본심의 마음이란 내가 옵마니반메후이며, 옵마니반메후가 내가 되는 마음입니다. 본심인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속에서, 모든 존재들을 향한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심을 통해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묘용(妙用)이 생활 곳곳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총지교도 여러분

경자년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흰 쥐의 해입니다. 불교에서 풍요



통리원장 인선정사

와 번영은 개인과 집단의 탐심(貪心)에서 비롯된 이익의 확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펼치며 불국정토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총지중은 특히나 창종 50년을 맞이할 체비에 박차를 가하는 해입니다. 종단은 어느 해 보다도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하며, 교화에 한발짝 앞서 나가야 합니다. 불교총지중의 발자취는 부처님의 사명임을 이어받아 개인과 가족, 국가와 세계를 위해 깨달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밀교의 불을 다시 밝히신 종조 원정 대성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초심과 본심의 마음으로, 풍요와 번영의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경자년 한 해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 공덕으로 하시고 자 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아침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합장

불교총지중 총기 48년 창교절 법회 봉행

통리원, 교화발전에 기여 전국 26명 교도에 감사패 수여

불교총지중은 12월24일 총기 48년 창교절을 맞아 기념 봉축법회를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했다.

이날 총지사에서 봉행된 창교절 법회에서 종령 범공 예하는 "종조 원정 대상사의 총지중 창종은 이 땅에 밀교 중흥의 씨를 뿌린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근대한국불교사의 일대사로서 그 위대한 업적을 오늘의 우리들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유시했다.

또 창교절을 맞아 불교총지중 통리원(원장: 인선 정사)은 총지중 교도로

서 삼밀수행과 육행실천으로 타인의 교감이 되고, 교도 상호간의 화합과 봉사에 출선수범하여 교화 발전에 기여한 전국 사원 중 26명 공로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경인교구 김경숙(법천사), 보경 진전대일(실지사), 양재법(벽통사), 이정수(총지사) △충청전라교구 김경순(해정사), 김현정(흥곡사), 박경신(백월사), 박복자(법황사), 배정일(만보사) △대구경북교구 김광선(계석사), 박금화(수인사), 박순조(개천사), 윤복자(건화사), 정옥선(수계사) △부



산경남교구 강순란(화음사), 박귀임(단향사), 박금자(운천사), 박금자(실보사), 손태희(성화사), 송복득(덕화사), 윤원숙(정각사), 이두교(삼밀사),

이순점(법성사), 최순자(관음사), 최점주(자석사), 황형(밀행사) 이상 총 26명(교구별 이름 가나다순).

(관련기사 11면)

중/조/법/어

가정에서 월초불공을 하던 분이나 가정형편으로 월초불공 못하는 분도 새해불공은 서원당에 나와 스승 앞에서 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 면 안내

2면 교계 증정 범어
6면,7면 신년사

5면 이달의 법문
11면 창교절 특집기획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교총지중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범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사감원장 법경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지혜와 자비로 생명존중, 인류행복 실현



조계종 종정 지제 스님

새해아침 복(福)을 여는 즈음에 그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眞理)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새해에 복을 여는 것이냐?

집집마다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고 뛰어 놀고 어른들은 사랑방에서 서로 술잔을 건넨 이로다.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일 아침 떠오르는 밝은 태양(太陽)의 빛이 번뇌를 지혜로 바꾸고, 무명(無明)을 깨달음으

로 바꾸는 전신(轉身)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진여법계(眞如法界)에는 만덕(萬德)이 갖추어져 있으니, 수용(受用)과 묘용(妙用)이 자재(自在)합니다.

내가 그대로 우리가 되고, 이기심(利己心)이 그대로 이타심(利他心)이 되며, 아만심(我慢心)이 그대로 자비심(慈悲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眞理)를 깨닫고 보면 세간법(世間法)과 불법(佛法)이 둘이 아닙니다.

진리의 광명(光明)은 항상 시방세계를 비추니 나와 남이 원래 없으니 옳고 그름이 원래 없습니다. 밝음 가운데 어둠이 있고 어둠 가운데 밝음이 있으니 밝음과 어둠이 동일체(同一體)입니다.

종교는 인간내면의 정화(淨化)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인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정치와 사회의 기본이념이 되어 생명존중(生命尊重)

과 인류(人類)의 행복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國民)들이시여!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이 화두(話頭)를 쟁기고 의심하면 물록 ‘참나’를 깨닫게 됩니다.

참나 속에는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고, 참나 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참나 속에는 변치 않는 정이 있고, 참나 속에는 밝은 지혜가 있고, 참나 속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필경(畢竟)에 진리(眞理)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萬古微然何處覓(만고위연하처觅)고. 頭頭物物現古風(두두물물현고풍)이로다. 만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으실꼬? 두두물물이 고풍의 진리를 드러냄이로다.

정진하는 기쁨으로 새해를



천태종 종정 도영 스님

한줌의 흙도 마다 않고 끌어안아 높은 태산이 되었으며 한 방울의 물도 내치지 않아 저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었으니 작은 선행이 반복되면 인격이 바뀌고 찰나의 불심을 모아 성불의 길로 나아갑니다. 수행자는 정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소박한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이 인정받고 정직한 맘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얼어붙은 마음을 풀이 막힘없이 흐르는 가운데 자비로써 서로를 배려하며 국운의 융창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합과 성취의 새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화해와 소통의 새날을 열어갑시다



진각종 종인 경정정사

중생의 심전心田에도 늘 함께하여 화해와 소통의 새날이 항상 하길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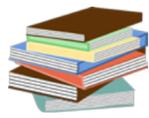
진각眞覺의 무진원無盡願이 범계에 종만하여 공사公私가 바로 서서 진실을 실현하고 세상에 화해가 넘치고 소통이 순조로워져 참회와 용서의 터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심성은 본래 화해의 궁전이어서 진리와 화해하여 하나가 되고 자기와 화해하여 주인공을 찾아

중생과 화해하여 더불어 살아갑시다. 화해의 기운으로 살면 인생은 안락하여서 화해의 마음으로 느끼면 세계는 만다라요 화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도이며 화해의 귀로 들으면 천지는 화음의 자리입니다.

종교가 사법邪法을 정화하여 정법을 세우면 정치는 정쟁을 쉬고 정도로 걸어가고 경제는 독식獨食을 넘어 풍요를 나누며 사회는 분쟁을 풀어서 화평을 누립니다. 새해 새 세상은 화해의 만다라 중에서 마음 다해 손잡고 수행하며 웃어봅시다.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한 대일大日의 서광瑞光이



법등정사 총지법장 總持法藏

서원은 중생의 뜻 성취는 부처님의 뜻

신라의 황룡사는 왕족과 귀족들이 다니는 절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주문의 단청을 벗겨내고 있었다. 금칠을 한단다. 멀쩡한 단청을 벗겨내고 일주문에 칠 할 금이 있다면 차라리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바로 원효였다. 많은 귀족부인들이 원효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합장했다.

내 것이라고 해도 재물을 잘못 쓰면 화문(禍門)이 열리고 죄가 된다. 하물며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겠는가. 욕심은 최선이 아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다.

모사재인성사재천(謀事在人成事在天)

제갈공명은 위나라 사마의와 위나라 군사를 섬멸하기 위해 호로곡에 자신의 군사를 미리 숨겨놓고 이곳으로 적군을 유인했다. 계곡으로 적군이 진입해 왔을 때 계곡대로 일제히 화공(火攻)작전을 시작했다. 사방에서 불화살을 쏘고 땅에 묻어놓은 화약이 여기저기에서 폭발하며 작전이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화공은 그만 실패하게 되었다. 제갈량은 한탄을 하며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成事在天, 일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달렸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이라고 했다. 그의 뛰어난 계획과 욕심은 실패하고 말았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꾸미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있다.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성사여부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고 수순한다는 뜻이다.

일은 업을 따른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욕심도 내지만 일의 성패는 인간의 복력과 업인연이 좌우하기 때문에 바라고 욕심을 낸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이 잘 안 되면 '해도 안 된다'고 하며 분노하고 원망도 하지만 일은 자신의 업을 따른다. 큰일을 이루려고 하면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력과 이를 수 있는 업인연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사에 너무 집착

하거나 욕심을 내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복력과 좋은 업인연을 먼저 살피고 가꾸며 인연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분수와 인연을 모르는 욕심은 탐욕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심이 아닌 큰 욕심 즉 대욕(大慾)을 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 성불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다. 일이 업을 따름을 모르고 분수를 망각한 욕심과 내 인연 밖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공을 심고 팔을 바라거나, 자신의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 하면 이것이 탐욕이다. 이런 탐욕은 재앙이 되고 화문이 된다. 서원은 중생의 뜻이요 성취는 부처님의 뜻이다. 되는 것도 법이요 안 되는 것도 법이다. 그러므로 일을 도모함에 있어 자신의 분수와 인연을 생각하고 노력하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음이 좋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사위성에 나이 많은 큰 부자 바라문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무지하고 아끼고 탐하는 욕심이 많았다. 노인은 장차 자신이 편안하게 거처할 많은 집들을 새로 짓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노인의 수명이 오늘 다하게 되어 그의 계획과 노력이 허망하게 끝남을 아시고 죽기 전에 진리법문을 설하여 깨우치게 하려고 찾아가셨으나 노인은 집짓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부처님께서 그곳을 떠나신 뒤에 노인은 떨어지는 연못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법구비유경, 불교총론 186p>

좋은 인연(因緣)을 짓고 노력하되 인생사 모든 결과는 부처님 뜻에 맞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분노와 한탄이 생기지 않고 원망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경자년 새해에도 무사무탈 하시고 불은(佛恩)이 가득하여 마음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서원합니다. 음 시디안뚜! 모든 것이 원만 성취될 지이다!

그때 그 시절

신규스승 교육

총기 32년(2003년) 1월 17일(금) 통리원에서 시무교육 시작

- 매일 7일씩 통리원 및 각 사원에서 교육 실시
- 대상 : 총지사: 이중석(화령), 김홍배(법경), 이선희(정계월), 백월사: 유성형(범우), 이옥진(인지사) / 벽룡사: 황보상민(목경), 이희자(법수연) / 개천사: 최명현(우인), 박노주(보명심) / 운천사: 장선옥(금강륜) / 정각사: 박인관(안성)

관음학사 동해중 법인 특별감사

총기 34년(2005년) 1월 11일(화)

- 제목 : 관음학사 동해중 법인감사
- 장소 : 동해중학교
- 감사기간 : 1달 동안
- 감사대상 : 동해중 행정, 재정, 업무, 학사 전반
- 감사자 : 재무부장 시정, 사무국장 법경, 우인정사, 원중현, 정영문

총령령 제 9호 '종조탄신대제' 법령 제정 공포

총기 34년(2005년) 1월 17일(월)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일을 종단의 정식 경축일로 정하고 명칭을 '종조탄신대제'로 하며 1월 29일(양력)에는 전국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이 모두 동참하여 종조탄신일을 경축하는 불사를 올리기로 제정

제98주기 원정 종조 탄신대제 봉행

총기 34년(2005년) 1월 29일(토)

- 목적 : 총기33년 2월 승단총회에서 총지종의 정통성 회복과 창종조 원정 대성사에 대한 이념 전승
- 일 시 : 총기 34년 1월 29일
- 시 행 :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
- 장 소 : 서울경인교구는 총지사 2층 원정기념관
- 참가인원 : 효강 종령, 서울경인교구 승직자 및 교도 100여명

제15대 통리원장 취임식 봉행

총기 36년(2007년) 1월 29일(월)

제15대 통리원장 원승 정사의 취임식 봉행

집행부 구성	소속	법명	발령사항
	개천사	경원	총무부장
	통리원	시정	재무부장
	통리원	선도원	교정부장
	운천사	인선	사회부장
	총지사	법일	통리원사무국장

겨울 스키 수련법회

총기 40년(2011년) 1월 19일 - 21일

1. 일 시 :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2. 장 소 : 강원도 횡성 현대성우리조트
3. 참가인원 : 승직자 6명, 교무 12명, 바라밀공부방선생님 1명, 지도교사 2명, 참가학생 58명, 총 79명
4. 행사경비 : 13,857,850원

총지종, 불기협에 불교 언론인 자녀 장학금 신설

지난 12월 2일, 2019 불교 기자상 시상식에서 첫 전달



불교총지종 총리원(원장: 인선 정사)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에 총지종 불교 언론인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고, 불법 홍보를 위해 애쓰는 기자들의 자녀들에게 매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월2일 개

최된 '2019 한국불교기자협회의 밤 및 한국불교 기자상 시상식'에서 첫 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총리원장 인선 정사는 격려사에서 "불법 홍보를 위해 앞장서는 기자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다." 인사하고, "기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을 냈으며, 불교계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노력하는 언론인들을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후원할 계획이다."고 장학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총지종 장학금은 김형규 명예회원(법보신문 대표)의 자녀 김도균 군이 받았으며, 그동안 불기협이 운영 해온 혜충 장학금은 김원우 명예회원(우리불교 대표)의 자녀 김수빈 양에게 전달됐다. 한편 이날 기자상 대상은 포교현실에 대한 고민과 극복 방안을 성공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포교, 부처님 법 꽃을 피우다'를 기획연재 한 불교TV 정준호 기자가 수여했다. 또 취재보도 부분은 '불교 자주성 박탈 세계유산관리법'으로 세계유산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취재 보도한 법보신문 최호승 기자가, 기획해설부문은 신성민·노덕현 현대불교 기자들의 '불교언론과 뉴미디어'에 돌아갔다. 박재원 기자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법요식 봉행

12월 24일 구인사, 인선 총리원장 등 2만여 참석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12월 24일 충북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8주년 봉축 법요식을 열었다. 이날 봉축 법요식에는 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국내 불교 종단 대표들과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신도들 2만여 명이 참석해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 문덕 총무원장은 봉축사를 통해 "나라 잃은 암울한 시기에 이 세상에 출현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는 각고정진으로 대각을 성취했다"면서 "이곳 구인사 산문을 열어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새로운 불교의 기틀을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1911년 음력 11월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원각(속명 박준동) 대조사는 15살 나이에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45년 소백산 기슭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맥이 끊겼던 천태종의 중흥을 이끌었다. 상월원각대조사는 '일심(一心)이 상청정(常淸淨)하면 처처(處處)에 연화개(蓮華開)나라(마음이 항상 깨끗하면 어디서나 연꽃이 핀다)'라는 유명한 법어를 남겼다.

울주 자재요양병원에 500만원 성금

총지교도 '십시일반' 정토사회 실현에 보탬 되어야



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일환으로 지난 12월 16일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를 대신하여,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가 참석하였으며, 사회복지재단 김태원 계장이 대동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자재요양병원은 능행 스님이 지난 1988년 개원해 의료사업과 명상치유센터를 통해 수행과 전인적 돌봄을 실천하는 곳으로, 호스피스병동, 재활병동, 승가병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능행스님을 대신에 도감 도윤스님과 장광대 사무국장인 대신해 성금을 전달 받았다. 법상 정사는 "총지 교도들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성금을 꾸준히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람이 곧 치유다."를 이념으로 하는 이곳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 하나된 정토사회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자재요양병원에 전달되었다. 울주= 박재원 기자

종로구, 강서구 구립 어린이집 2곳 수탁

1월부터 원장 임명 및 운영 개시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은 종로구 구립 아동회관어린이집(원장: 진금선)과 강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벗고어린이집(원장: 이민선)을 운영권을 종로구청과 강서구청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아 1월 1일부터 원장을 임명하고 운영을 개시한다. 종로구 지봉로 13길 14번지에 위치한 아동회관어린이집은 연면적 367.95㎡에 지상 2층으로 정원은 96명이다. 아동회관어린이집은 앞서 재단법인 선학원이 위탁 운영하던 곳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종로구청에서 신규위탁 운영체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선발하였다. 벗고어린이집은 강서구 화곡로 58길 100번지에 연면적 452㎡, 지상 1,2,3 층 규모로 정원은 86명이다. 위탁 기간은 각각 총 5년간이다. 한편 이로써 복지재단은 강남구에 초록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등 총 6곳에서 2곳이 늘어 올해부터는 8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재단, 희망 온돌 캠페인 참여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에 총 500만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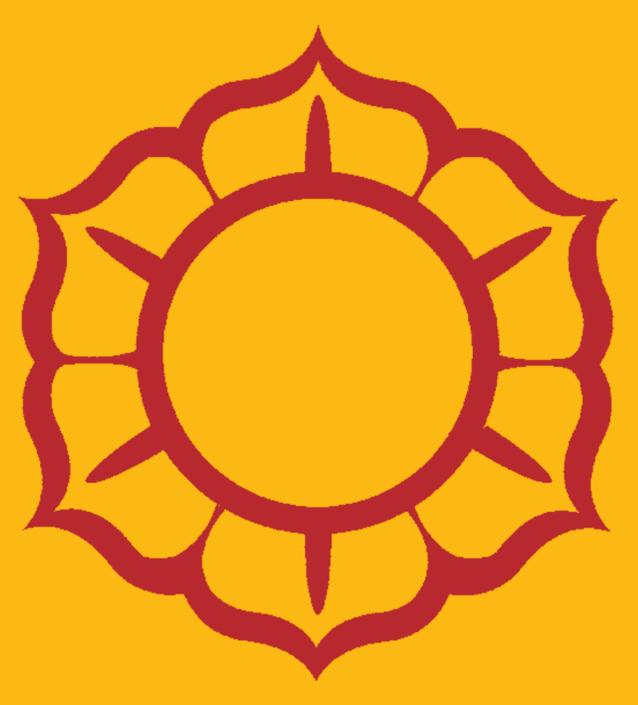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2020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이 강남구청 200만원, 서초구청 200만원, 종로구청에 100만원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 및 어린이 시설의 소속 관할 구청에 특별히 맡긴 것으로 성금은 각 구청에서 선별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재단 김태원 계장은 "우리 재단은 불우가정 생활비 지원 등 복지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금번 보시행의 실천으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서원한다."고 성금 전달의 의미를 설명했다.

"총지신문 발전에 써주세요."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 성금 쾌척



서울경인지회 신정희 김은숙 지회장은 지난 12월 27일 총리원을 방문, 총리원장 인선 정사를 면담하고, 총지신문 발전에 써달라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은숙 지회장은 "총지종보에서 신문으로 제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단이 다른 불교신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총지 홍보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면서 "미력이나마 종단과 총지신문 발전에 돕고 싶었다."며 성금의 취지를 밝혔다. 총지종보는 지난 1995년 10월 16일 처음 발행한 이래, 총 241호를 발간했으며, 2020년부터 1월부터 제호를 총지신문으로 바꾸고, 종단뿐만 아니라 교계 언론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면모를 갖춰갈 예정이다.



경자년 새해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오래 지은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장원하게 지은 악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종조법설)

일시 : 총기49년 1월 6일(월) - 1월 12일(일)

장소 :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Tel. 02-552-1080~3 www.chongji.or.kr

불교총지종



연명의료 20

죽음을 초연하게 대처하는 법

법상 정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갑작스럽게 죽을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연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죽은 후 자신도 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면 두렵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 차만 보면 두렵고 언제 죽을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 병원에서 술 담배를 이대로 계속한다면 10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갑자기 끊지는 못하겠고, 일찍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큰일을 당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집니다. 그러나 보통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깜빡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많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적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수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각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텅텅하게 되는 상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법

첫째, 수행과 명상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매순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 사라질 때 신경이 쓰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사라질 때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차가 부수어 질 때 큰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의 차가 부수어지면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상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철저히 사무치면 죽음에 대해서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것이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매순간 총

실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따라서 현재에 계속 집중하며 호흡명상하면 설령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전혀 공포나 두려움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 때까지 열심히 살아갈 뿐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면 죽음이란 공포가 일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연과 결과가 있을 뿐임을 깨우친다.

호흡,108배, 진언염송 등 수행과 명상을 통해 <인교법칙>을 확연히 깨닫도록 하자. 이렇게 순리대로 온 것이 온 것으로 알면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다. 철저한 원인과 인연에 의해서 찾아온 죽음이라면 죽음에 순순히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일어날 때는 그것이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여실히 알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적게 될 것이며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드리며 마음 편히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

수타니파타(초기경전의 하나/경집)중에 ‘화살의 경’이 있다. 외아들을 잃고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는 제가불자의 한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었다. 이에 부처님이 가엾게 여겨 찾아가서 법을 설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과 죽고 난 후를 모르기 때문에 슬퍼할 뿐이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고 슬퍼해 보아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계속 법을 설하였다.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의 목숨을 정해져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애처롭고 짧아 고통으로 영커어 있다. 태어나 죽지 않고자 하나, 그 방도는 결코 없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도래할 뿐이다. 그대는 오거나가는 사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네. 또한 그대는 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울 뿐이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다만 더욱 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윌 따름이네. 자신을 위해 행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쏨 비탄과 탐욕의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려야합니다.”



심보이야기 3

법상 정사

물질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오늘은 우리가 매일보고 느끼고 인식되어지는 물질에 대해 알아보자. 과연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식되어진 물질은 입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파동으로 존재하는가? 물질은 실제 존재하는가?

물질의 최소단위, 원자

현대물리학인 양자물리학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이다. “너무 작은 세상이라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하여 미시세계(微視世界)라고 부른다.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에 실재하는 원자는 100여 개이며 우리 주위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원자는 약 30여개 정도의 원자로 구성되었다.

원자의 모양은 단순하다. 가운데 원자핵 양전하를 띠고 그 주위에 아주 작은 전자 음전하가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다. 이게 우주의 본질이다. 원자의 크기는 너무 작아 볼 수 없다. 머리카락 단면에 원자를 십만 개에서 백만 개 정도 늘려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가장 작은 수소 원자핵의 크기를 농구공 크기로 키웠다면 가정했을 때 전자는 수십km 밖에서 먼지처럼 작은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원자이다. 그리고 그 사이 99.999%는 빈 공간이다. 원자핵과 전자의 사이는 텅 빈 공간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은 텅 빈 공간과 같다. 원자는 거대한 텅 빈 공간이다. 우리들의 몸도 사실은 원자로 구성되어있으며 텅 빈 공간이다.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하나에 들어

있는 원자는 100조 개이고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수는 100조 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60억 사람들은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 있으며,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1천억 개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의 99.999%, 우리가 욕망하는 것의 99.999%, 그 모든 것의 99.999%는 빈 공간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空即是色)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空即是色)

최근 현대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입자로 존재하는 물질이 꼭 입자로 존재하지 않고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중슬릿 실험은 두 개의 구멍(슬릿)으로 입자를 통과시킨 뒤 통과한 입자의 분포를 확인해 어떤 분포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두 개의 구멍을 놓고 빛을 알갱이(광자) 하나씩 통과시킨 뒤 스크린에 부딪히게 하면 ‘상식적으로는’ 구멍이 난 두 곳 뒤의 스크린에만 광자가 표시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해 보면 빛 입자가 물린 구간과 물리지 않은 구간이 반복돼 나타난다. 이것은 입자가 파동의 특성을 보인다는 뜻이다. 물결과 소리와 같은 파동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한다. 입자는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관측을 하면 입자의 무늬로 나타나게 된다. 원자나 전자는 마치 자신이 관측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원자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한다는 이중슬릿 실험의 결과 관측이 실험 대상을 바꾼다.

최근 양자역학 실험은 원자, 전자의 미시세계가 아닌 수백 개 원자가 결합된 거대한 물질인

생체 분자를 이용해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파동-입자 이중성’을 처음 증명하였다.

양자역학 현상, 연기의 이치

현대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처럼 입자의 모양으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파동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다.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형태로 존재한다. 이중슬릿의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관측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가능성의 존재, 파동의 존재로만 양자들이 존재하다가 관측이 개입되는 순간에 입자가 되면서 우리 눈에 보여 지는 어떤 존재들로 현현하게 되는 것이다. 원자가 독립적인 실체라면 그것은 하나의 위치와 정해진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가 어딘가에 위치해 있지 않거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을 실체를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없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측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주장을 한다. 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았다면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속도도 갖지 않는다. 입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하는 물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만 비로소 그계의 미를 갖는다.

물리학적 실험과 불교의 가르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기법이 옳다면 양자역학은 물리학적 측면에서 연기의 이치를 말해주는 현상이며 불교의 가르침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둘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석사 도우 정사 편

내마음의 등불

모든 화는 입에서 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간에서 화를 일으키는 모두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항상 입을 불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거센 불은 세간의 재물만 태울 뿐이지만, 약한 말은 일곱 성현의 재물을 모두 태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의 화는 입에서 나오는 까닭에 입을 몸을 부수는 도끼요 몸을 멸하는 칼날이로다.”

<불교총전 404쪽 17번, 보은경(報恩經) 중>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자석사 도우 정사는 다음 주자로 만보사 안성 정사를 지목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새해불공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할까요?

법수연 전수

하루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함에 있고
칠일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함에 있고
한달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함에 있고
일년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함에 있다.

<종조법설집p110>

7일을 투자, 1년이 행복

1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자년 새해불공기간입니다.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의 소원은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해오던 불공이건만 할 때 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새로운 질문에 맞닥뜨리는 보살님들께 도움을 조금 드리자면, 처음 입교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종조님 말씀대로 7일을 투자하여 1년이 행복하다면 해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나요?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서원으로 용맹정진하면 좋겠습니다. 곡식을 심더라도 한곳에 여러 종류를 심으면 각각 요구하는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가 없듯이, 우리들이 서원하는 바도 종류(경제해탈, 자녀결혼, 시험, 병고...)에 따라 참회, 정진, 회상법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우선 목적지를 정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듯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를 목적으로 정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7일간의 당체법문을 나침판으로 삼는다면 실타래 풀리듯 순조롭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12월 24일 창교절에 불공을 회향하면서 나름 새해불공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불공을 회향함과 동시에 다음 불공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도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교진학을, 고교졸업과 동시에 대학에 입학하듯이 말입니다. 새해불공기간에는 꼭 일상 중에서 특별히 마음 가는 것이나 꿈(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소상히 메모해 가면서 당체법문을 잘 관리하면 1년 동안 현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불공기간을 고지하여 불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안부전화 및 방문자제)를 구합니다.

협조요청에 응해 주는 가족의 입장에서, 불공하는데 편안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이 기간만이라도 묵언정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7일이란 시간 동안 묵언을 연습했기 때문에 구업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1년간은 말로 말미암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미리 예약이 되어 있거나 복용하던 약은 불가피하겠으나, 불공 중에 몸의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약이나 병원출입을 삼가하고 부처님 법약에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면 1년 동안 약과 병원을 조금이라도 멀리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당체 법문을 잘 관리해야

새해불공 기간 동안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류를 포함하여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류를 포함한 불살생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극적인 맛의 경우, 순간적이나마 평정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매운 맛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열뇌를 벗어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기간 중에는 대부분 사원의 공양처에서 점심공양을 하지만, 새해불공기간만큼이라도 식탐을 제어하고 빗지지 않는 차원에 조금씩이나마 회사나 공양비를 보시하는 것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질(금전)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상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불공기간 내 큰돈이 나가고 들어움을 자제한다면, 1년간 돈에 대해 마음 쓸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가능하다면 시장 볼 것도 일주일 치를 미리 봐 놓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저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고, 보다 보면 탐이 나기도 하고 물건의 가치를 따지며 번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만이 기회일 것 같지만, 속지 말고 불공을 모두 마친 다음 이뤄지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공을 마치고 난 후, 해당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없다면, 이는 이대로 잘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해 보다는 질량 한 숟가락이라도, 동전 한 닢이라도 더 실천하여서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이 되고, 더욱 여법하게 마음의 고삐를 조절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근기에 따라 활용하시되 자신이 일주일간 꼭! 지킬 수 있는 계행을 스스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조님께서 “우리 총지종법은 고해중생의 안정체가 되고, 중생교화에는 무진등이 되며, 세계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고해로 볼 때 그 속에 사는 우리들 중생이 명명백백한 인연과보(因緣果報)를 공부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지종교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원의 정사전수님과의 인연과보에 입각한 진솔한 대화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가 바로 고해 중생에 안정체가 됩니다.

무진등처럼 꺼져 나가자

무진등(無盡燈: 자신이 등불 켜 뒤 그것을 이웃에 불이 되고 또 다른 집에, 마침내 모든 집에 등불이 켜지는 것과 같이 끝없이 등불 밝혀 나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불공하여 인과를 깨쳐 마음의 등불로 밝혀졌다면,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그 밝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불 없이 캄캄한 길을 혼자 등불하나 켜고 가기도 보다는 많은 불이 켜져 있음으로 인해 대낮같이 밝다면 길을 오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럿도 아닌 딱 한 분만을 염두에 두고 1인 제도를 실천 해 봅시다. 딸을 제도 시킨 보살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라고 털어 놓자, 제도된 딸이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위를 제도시켜놓으면, 자신의 삶의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만사가 인연소이로 이뤄지기에 인연과보를 모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 십상이지만 인과를 알면 내 것으로 받아들여 참회하고 오히려 감사해하면서 서로를 위해 불공하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실천하다보면 방울물이 대해를 이루듯 우리가정, 동네, 나아가 구경에는 세계에까지 미친다는 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잘 설계된 새해불공의 계획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절절한 마음으로 용맹정진 합니다. 전국의 사원마다 축하할 일과 축하받을 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법신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지심으로 합장 발원합니다.

지혜의 눈

과연 노년의 역사 공부란 무엇일까?

노년 세대의 지식, 상대적임을 자각해야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

도시의 시민대학에서 세계사 강의를 진행하는데, 수강생 중 50대와 60대가 대부분이다. 노년에 다시 세계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 재미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수강자들이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강의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강의내용이 생소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첫 번째 이유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주었다.

노년의 역사 공부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두 가지를 떠올렸다. 먼저 현재 유행하는 지식과 흐름에 무지한 것은 괜찮으나 기존의 지식과 경험으로 후세대들을 재단(裁斷)하고 충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주축은 노년에 접어들어 이들이 아니다. 40년 전에 배운 지식은 화석에 해당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나이든 세대가 정장년 세대가 가진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노력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 노년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노년 세대는 청년이란 이미 지나온 시절이 있으므로, 그 나이 때의 정서와 열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거 노년 세대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재해석된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트남 전쟁과 68혁명 같은 것이다. 나이든 세대에게 각인된 베트남 전쟁은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을 뿐,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 아니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베트남과 한국은 민족해방운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한 경험이 있다. 1920년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조선의 여운형과 베트남의 호찌민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였다. 자기의 견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베트남 전쟁이 적어도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

야 한다. 노년의 지식은 낡은 것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68혁명은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전에 반대하던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점거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1960년대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대 운동이 거세게 불어 닥친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과 추축국 사이의 전쟁으로 동원된 무기는 그 시기의 과학기술의 최정점에 이른 것들이었으며,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보자면 서구 문명의 정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질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에 불과했고 무엇보다도 홀로코스트라는 야만적인 대량 학살(Genocide)이 벌어진 전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에 참여한 나치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 논리로 2차 대전 중에 벌어진 전쟁 범죄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명백한 증거물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위선에 대해 전후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가 비판하고 나선 것이 바로 68혁명이다. 기성세대에 맞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나타난 것들이 히피였고 뉴에이지였고 미국의 반전운동이었고 프랑스의 68혁명이었고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었다.

이 68혁명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가 성토하고 반대하는 베트남전쟁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당시 전쟁 특수로 눈부시게 경제가 성장했으나, 국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노년의 역사 공부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칼럼리스트 김태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경자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 신정회 지회장 황월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전라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대립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다



다 발전되어 인류가 행복하고 만물이 평화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 빠르고 세상의 변화는 역동적이어서 자칫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렇수록 우리는 진심을 다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밝혀 가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야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날마다 부처를 만나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날마다 보

살을 마주쳐도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만나는 것이 부처님 일대시교의 핵심입니다.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니, 한 번의 좋은 생각이 억겁의 행복을 열매 맺게 하고, 한 번의 착한 행동이 일체중생을 복되게 하는 도리를 사무쳐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나부터 선심으로 지혜를 밝히고 나부터 선업으로 자비를 실천하여 시방삼세의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대지를 밝히고 만 생명을 비추니 곳곳이 불토요 만상에 공덕 아님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마다 높은 차원의 복락을 가꾸며 꿈을 성취하고, 사회가 보

천태종 총무원장 이문덕 스님

나부터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라



시대의 흐름은 빠르고 세상의 변화는 역동적이어서 자칫 삶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렇수록 우리는 진심을 다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여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밝혀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야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날마다 부처를 만나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날마다 보살을 마주쳐도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좋은 인연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만나는 것이 부처님 일대시교의 핵심입니다.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니, 한 번의 좋은 생각이 억겁의 행복을 열매 맺게 하고, 한 번의 착한 행동이 일체중생을 복되게 하는 도리를 사무쳐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는 나부터 선심으로 지혜를 밝히고 나부터 선업으로 자비를 실천하여 시방삼세의 일체중생이 모두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마다 높은 차원의 복락을 가꾸며 꿈을 성취하고, 사회가 보다 발전되어 인류가 행복하고 만물이 평화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더불어 잘 사는 만다라 세계 구현



새해 큰 걸음을 하면서 지혜를 밝히고, 자비행을 실천해 자성부처를 이룹시다.
부처를 마음 가운데서 찾으면 자성부처님이요, 밖에서 찾으면 법신부처님이요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진으로 맞이하듯 순간순간을 도전하는 정신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빛이 됩니다.
박한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밝은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합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성을 깨달은 사람이며, 자성을 깨달은 사람은 본심이 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볼 줄 아는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당체법문을 바르게 보아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는 생활인이 됩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에는 생활이 곧 진리요, 삶의 터전이 곧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정진하고 서원합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도 부흥시켜야 합니다.
너나없이 누구나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음그릇을 기웁시다.
상호공양의 정신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보살행을 합시다.
더불어 잘 사는 만다라세계를 구현합시다.
마음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어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서원합니다.

자성을 밝히고 본심을 찾습니다.
경자년 새해, 새 아침입니다.
국가와 국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새로운 출발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성을 찾아서 본심으로 밝게 나아가는 큰 걸음입니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에 침해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한 삶



은유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그리고 태고종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종단은 종단 사상 유래 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과 불자, 종도 여러분들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용과 평화보다는 한 사람의 사욕과 잘못된 인식이 한 집단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불러왔고, 혼란과 분열을 일으켜왔는지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경자년 새해는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쥐를 만월보살(滿月菩薩)이라고 합니다.
만월보살은 달이 신신하고 아름답게 빛나 중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맑은 물을 채우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만월보살이 달에 광명의 물을 길어다 아무리 채워도 악마가 그 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물이 자주 떨어졌습시다.
이에 만월보살은 그 악마를 잡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쥐의 신으로 변신, 사바세계에 와 물을 먹여치우는 악마를 무찌르는 동시에 광명의 물을 길어다 달에 채워 중생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월보살의 그 기운과 복덕이 여러분 모두에게 두루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은 지혜와 향기로 깨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소원하신 일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쥐 가운데서도 흰쥐의 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근면성과 저축성, 다산성, 그리고 풍요성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쥐는 또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으려 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을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고불동행(古佛同行)’ “옛 부처님과 같이 간다.”는 뜻으로 이 스님이 불자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 자주 쓰

는 글귀입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에 보면 부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세계를 생각으로

나 계산으로 알아 낼 수 있겠느냐고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대중들은 이 모든 우주 세계는 셀 수도 없으며, 마음과 생각으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고 답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서는 내가 성불한지는

백천만억 나우타 아승지 겁보다 더 오래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중생들을 이익 되게 인도하시고, 또 열반에 들은 것처럼 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 하십니다.
‘고불동행’의 진정한 뜻은 과거, 현

재, 미래에 부처님께서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부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Advertisement for BTN 불국토상조 (BTN Buddhist Cremation) featuring a lotus flower logo, contact information (1577-7675), and details about services like '장엄번 제단' (Ornate Altar) and '스님 시다림' (Monk's Shidarim). It also includes a testimonial from a '장례포교사' (Funeral Director) and information about a '우량업체' (Quality Company) certification.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진실한 자세로 나를 살피자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아귀다툼도 여전할 것이고 서민 생활 또한 고달픔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가식(假飾)과 위선(僞善)을 과감히 걷어내고 진실한 자세로서 나를 살피고 이웃을 돌아볼 때 참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바세계의 공업(共業) 중생이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힘 뿐입니다.

다. 우리 불교도들이 지혜와 자비로 사회의 등대가 될 때에 이 사회는 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불국 정도로 바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총지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보디미트라 국제재가불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맑고 밝고 바른 서원을 실어 많은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제불보살의 가지(加持)가 두루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혹심했던 경제난과 어수선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여 밝아야 할 우리의 마음은 왠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올해도 세계적 불황 속에



사감원장 법경 정사 덕과 지혜, 풍요를 구족하소서

쥐는 물건 등을 잡아먹거나 끊어버리는 습성이 있듯이 우리 중생들 또한 이치에 어긋나거나 선연(善緣)의 끈을 끊어 버리기도 합니다. 즉 선심(善心)을 잘라버리고 악심(惡心)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쥐의 해를 맞이하여 좋은 의미의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쁜 의미의 서심(鼠心)은 끊어 없애는 한 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수행하는 우리 진인행자들이 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부의 인연, 부모자식간의 인연, 스승과 제자간의 인연, 이웃 간의 인연 등 소중한 인연은 끊지 말아야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돈독하게 다져나 가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탐진치의 삼독심시오, 집착과 욕망입니다. 또한 마음에는 악심(惡心)을 버리고 자비심과 보리심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자비와 보리의 종자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비심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보리심은 상구보리 화하중생의 마음입니다. 한 해 동안 자비와 보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다스려 나갑시다. 덕과 지혜, 풍요를 구족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발원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단의 모든 스승님들과 전국 사원의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은 쥐의 해입니다. 쥐는 부지런함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설화 속에서는 덕(德)과 지혜(智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의 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교구장 정인화 전수 행복한 한 해를 만드는 길

필요합니다. 그 비움에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질투라는 마군을 물리치고 단속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단속하는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청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계(持戒)를 말합니다. 청정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원성취는 업장소멸에 있고 그것은 바로 '청정지계'에 있습니다. 삼업청정(三業淸淨)을 말합니다. '삼업청정'에서 업장소멸, 소원성취, 나아가 지혜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

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무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작은 일에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년 365일을 새해 아침을 맞이하듯 하루를 즐겁고 항상 새롭게 맞이한다면 마음 속에는 행복과 즐거움의 씨앗이 틈실해집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밝고 뜨거운 태양, 둥근 보름달과 같이 원만무애하고 광대한 마음을 갖는다면 경자년 한 해도 더욱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험찬 기운을 받으셔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구족하시길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서원을 세우고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와 노력이



대구경북교구장 법상 정사 자신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력이 충만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며 사회의 국론분열과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한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

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자신만의 생각과 이익만을 내세우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여 가정, 사회, 국가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종단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나라의 부강과 국민안,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불공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과 국력을 자랑하게 된 것도 우리들의 불공 공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용맹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배려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총천교구 교구장 지정 정사 참나를 돌아보는 경자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서원합니다. 경자년은 쥐띠입니다. 아함경에 "어떤 나그네가 막막한 광야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뒤에서 성난 코끼리가 나타나 나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폐허가 된 마을이 나타나고 오래된 작은 우물이 보였습니다. 마침 우물에는 칠포리가 내려져 있어 급한 나머지 그것을 타고 우물 속으로 숨어들어갔습니다. 한참 내려 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밑을 내려다 보니, 바닥에 무서운 독룡이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나그네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위를 쳐다보니 코끼리가 어느새 따라와 우물 밖에서 성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칠포리에 매달

려서 한숨을 쉬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며 칠포리를 잡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뿐만 아니라 우물 네 벽 귀퉁이에서 네 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그네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때 칠포리에 붙어 있던 벌집에서 꿀이 넘쳐흘러 우연히 나그네의 콧잔등에 떨어졌습니다. 나그네는 떨어지는 꿀을 훔다가 그 맛에 취해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다 잊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칠포리는 생명,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을 의미합니다. 네마리 독사는 몸을 이루는 있는 지수 화풍 사대를 의미하고, 독룡은 죽음을 의미하며, 꿀물은 재물, 이성, 음식, 명예, 장수 등 다섯가지 인간의 근원적인 욕심(오욕락)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호시탐탐 사신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음도 모른채 오욕락만 좇으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당장 눈앞의 오욕락에 취해 취생몽사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봄은 어떤런지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재난이 소멸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부처님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절찬리 분양중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51-468-7164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교(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초량지구대 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 1분거리, 대형마트 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 LG화선 스마트 천장형 에어컨 / 친환경 동화 자연마루 시공 / 실크벽지 / 불박이장 / LG공기 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 파트 | 23세대(2Type)
오피스텔 | 34호(3Type)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36)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⑪



법경 정사 (법장원 수석연구원/ 정각사 주교/ 동국대 강사)

중생의 마음을 짐승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심(狸心), 구심(狗心), 가루라심(迦樓羅心), 서심(鼠心), 사자심(獅子心), 휴유심(鷓鴣心), 오심(烏心) 등이 그러한 예다. 지난 호의 이심(狸心)과 구심(狗心)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가루라심(迦樓羅心)과 서심(鼠心)과 사자심(獅子心)에 대해 알아본다.

가루라심(迦樓羅心)

가루라심(迦樓羅心)은 독수리와 같이 사납게 생긴 상상의 동물 가루라에 비유한 마음인데, 언제나 큰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처럼 혼자서는 해내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맹수의 새인 가루라를 방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루라(迦樓羅)는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맹조(猛鳥)로서 독수리와 같이 사납게 생긴 새를 말한다. 생김새는 조두인신(鳥頭人身)이라 하여 머리는 새, 몸은 사람의 모습으로 큰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있다. 가루라는 불교에 유입되어 천·룡·아수라 등 팔부중(八部衆)의 하나로서 불법(佛法)을 수

호하는 호법중(護法衆)으로 변용되었다. 이 가루라는 밀교에서 태장계만다라의 외금강부의 남방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와는 달리 가루라심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나타낸다.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대일경소』에서 가루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루라는 언제나 양 날개가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믿고서 뜻하는 대로 날아가며, 이로써 큰 힘을 이룬다. 그러나 한쪽 날개가 작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언제나 많은 친구들과 서로 도와 이루고 보탬이 됨으로써 사업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나중에 마음을 낼 뿐, 홀로 나아가지 못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문득 저 사람이 행하는 데 내가 어찌하여 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을 해나갈 수 없는 허약하고 유순한 마음이다. 수행자에게 독립심과 용맹심,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강조하

고 있다.

‘용건한 보리심은 사자와 같아서 도움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

가루라와 같은 마음을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없앨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용맹정진인가. 생각과 답이 개인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심, 구심, 가루라심을 단박에 버리는 것이 최선의 용맹정진이다. 용맹정진은 지속적인 진언염송과 밝은 지혜, 넓은 자비로써 가능하다.

서심(鼠心)

서심(鼠心)은 쥐의 마음이다. 모든 열매임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인데, 언뜻 보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나쁜 뜻으로 쓰였다. 이치에 어긋나는 마음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한 마음까지 가미되어 있다. 『대일경소』에 서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쥐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열매임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쥐는 다른 상

자나 밭줄 등을 보고 이빨로 끊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며 손상시키고 부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빨로 좋은 것을 오히려 끊어내려는 마음이다. 이를테면 보리심을 길러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오히려 버리는 것이오. 자비심을 내어야 하는데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리고 살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다. 보시 보다는 인색함을, 화합 보다 이간양설을 저지르는 마음이다. 선심(善心)을 끊어버리고 악심(惡心)을 일으키는 마음이다. 악심(惡心)을 끊어지지 선심(善心)을 종자를 끊어버리고 있다. 중생의 악심을 쥐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다.

사자심(獅子心)

사자심(獅子心)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사자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두려움이 없고 약함이 없는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려움이 없고 약함이 없는 법을 닦는 것은 선법(善法)으로 볼 수 있지만 여

기서는 불선한 법으로 비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깨달으신 부처님은 사자(獅子)에 비유하지만 중생의 마음은 남보다 우월하다거나 잘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을 빚대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자심은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다. 부처로서의 사자와 중생으로서의 사자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사자가 모든 짐승 가운데 이르는 곳마다 모두 이겨서 겁약하지 않은 것처럼 이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겐 승리하고 마음이 겁약하지 않고자 바라며, 자기 마음에 어려운 일이 없고, 나와 그 우열을 다룰 자가 없다고 여긴다.’ 아상과 아만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이를 다스리는 법은 『소』에서 이르기를, ‘석가 사자의 마음을 내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우열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평등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를 밀교에서는 삼매야(三昧耶)라고 한다. 밀교의 교설이나 삼밀수행, 계율, 의례 등은 궁극적으로 삼매야를 이루고자 하는 데 본 뜻이 있다.

자유기고가 정성준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삼발라왕국의 꿈



인도후기밀교 경전을 들여다보면 모든 경전들이 인간의 정신을 흡수하는 블랙홀처럼 보일 때가 있다. 모든 밀교 경전들은 고유의 철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 영역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지우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 하나의 밀교경전을 들여다도 역사, 문헌, 교리, 수행, 만다라, 의례, 논서, 전승이나 비평, 평가 등 주요한 화제들이 담겨있다. 어쩔 수 없이 경전을 선택해 기고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현교와 밀교를 가리지 않고 서구에서 가장 관심 깊은 불교경전을

들라치면 <갈라차끄라판트라>를 들 수 있다.

‘갈라(kala)’는 ‘시간’, ‘차크라(cakra)’는 ‘바퀴’라는 뜻이다. 종교적 전승에 의하면 <갈라차끄라판트라>는 2,800여년 전 3월 보름 석가모니붓다께서 삼발라왕국의 통치자인 수찬드라왕에게 설법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는 12,000개 송의 근본판트라와 60,000송의 석판트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고, 훗날 근본판트라의 요약본에 대해 만주슈리아의 아들인 뽀다리까의 주석인 <무구광석>이 오늘날 전해진다.

경전은 삼발라국에서만 1,500여년

간 보존되다가 다시 인도로 들어와 전승되었다. 10세기 전후 인도의 갈라차끄라빠다와 찌루빠는 히말라야북쪽 삼발라국을 찾아가던 중 각기 삼발라국의 환영을 보고 삼발라왕으로부터 관정을 받고 경전을 전해 받았다. 삼발라국은 96개의 소지방으로 분할되어 다민족과 다층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한다.

통치자인 만주슈리아사는 이들 모두에게 관정을 내리고 백성들을 금강의 형제자매로 묶어 통합하려 하였다. 10세기 인도는 무슬림의 침공으로 불교와 인도종교 대부분이 핍박받고 소멸

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았지만 <갈라차끄라판트라>의 성립은 확실히 인도불교의 비운과 맞물려 있다.

경전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이 천체를 다룬 외(外)시론, 2장은 인체 생리학을 다룬 내(內)시론, 나머지는 별(別)시론으로서, 3장은 관정, 4장은 생기차제, 5장은 구경차제로 이루어져 있다. 외시론과 내시론은 현교에 입각하면 아함이나 <구사론>에 보이는 세간과 인체의 지식이다. 반면 별시론은 해탈을 위한 관정의계와 양차제의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판트라와 마찬가지로 <갈라차끄라판트라>도 수많은 의례와 상징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도불교 최후에 출현한 경전으로서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고 다양한 이념들을 적용시켰다.

또한 가장 복잡한 관정과 계율의 체계를 갖추었다. 10개의 난찰체의 중

자가 결합된 본존의 종자는 무사한 이념의 집합체로 관상과 요가의 집합체이다.

갈라차끄라의 본존은 본초불(本初佛)로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이자 승의제로서 공성(空性)이다. 갈라차끄라는 시론(時輪)이라 의역한다. <무구광석>에는, “최승으로서 불변한 대락(大樂)의 상(相)이 곧 시(時)이다. 불변의 대락인 무애의 룬(輪) 가운데 육신이 탄생한다”라고 하였다. 공성으로서 허상의 번뇌가 부수어진 자리에는 붓다도 중생도 없고, 소멸도 생명도 아닌 본초불의 영원만이 시간을 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속제로서 삼계의 정복자이며 금강살타이다.

양 스승은 인도 나란다사 승원대학의 아사리들을 논쟁으로 설득해 <갈라차끄라판트라>는 크게 환영받게 되었다. <갈라차끄라판트라>는 양 스승의 전승으로 갈라져 티벳불교의 조남빠와 사까빠에 각기 전해졌다. 오늘날 <갈

라차끄라판트라>는 티벳불교에서 달라이라마 14세 텐진가초의 주도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96부적으로 분열된 인종과 종교를 통합하던 인도밀교의 지혜는 인류와 생명, 진리탐구와 깨달음의 대전제로 인류정신의 통합이라는 화이트홀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전세계 각국에서 그 관정식이 수해마다 열리고 있다.

세상이 어려운 시절이라 인도 밀교의 조사들이 남긴 별 같은 논서와 주석들이 좌도밀교라는 언어적 폭력에 상처받고 어두운 뒷골목에 버려져 있는 현실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필자는 <비밀집회판트라>를 연구하여 학위를 받았지만 경전 하나에 매달려 핵심적인 주석서들을 다 섭렵하지 못했고 여전히 잘 알지도 못한다. 전공이 아닌 다른 판트라에 대해 아는 체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천한 글들을 늘 참고 읽어주시는 수행 높은 스승과 선지식들의 자비가 고맙기만 한다.

수인사 교도

벌이 만들어준 천연의 황금보약, 직접 뜬 꿀!



꿀 양봉협회 포항지부장이 직접 뜬 꿀

₩ 40,000



화분(비폴렌) 천연꽃가루로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함유 (냉동보관)

₩ 50,000



봉정밀 꿀+프로폴리스+화분+로얄제리, 벌이 만들어준 종합세트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탁월함!

₩ 50,000 (500ml) ₩ 200,000 (2000ml)



로얄젤리 여왕벌의 먹이, 만능의 자연식품 (냉동보관)

₩ 50,000



프로폴리스 항균작용, 항산화, 항암효과에 탁월!!

₩ 50,000 (100ml)



프로폴리스 치약 입냄새 제거, 잇몸 튼튼, 충치예방!!

₩ 8,000 (200g)

종합 동해중 소식

동해중학교 '2019학년도 동해 학예제' 개최

댄스, 노래, 뮤지컬, 마술공연 등 학생들의 '끼' 한마당



종합 동해중학교(교장:송인근)는 지난 12월 18일,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동해 학예제'를 개최하였다. '동해 학예제'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학생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펼치는 기회의 장이다. 특히 이번 학예제는 무

대 구성뿐만 아니라 팸플릿과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3학년 박형준, 윤태호 학생의 런치패드 연주를 시작으로 댄스, 노래, 뮤지컬,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으며, 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다. 총 54명의 학생과 11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무대를 풍성하게 채우고 전교생과 전 교사, 학부모가 참석하여 많은 환호와 격려 속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학예제의 기획과 연출을 맡은 김은경 교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학생 개인이 가진 꿈과 끼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고, 그 재능과 소질을 발굴하여 보여줄 수 있는 학예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학예제 진행을 맡은 총학생회장 김제석 군은 "3년마다 돌아오는 학예제의 진행을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또 공연에서는 학생들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여 멋진 무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동해중학교=이에서 교사

교육활동 환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

교직원, 학생, 학부모 한자리서 새해 논의



종합 동해중학교는 지난 12월 13일 (금) 동해책마루에서 '교육활동 환류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2019학년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다함께 모여 평가하고,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로 삼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직원들은 부서별로 모여 협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은 학급 임원들이 모여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상호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또 학부모들은 학년별로 모여 지난해 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및 올해 반영되기 바라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오영주 교무부장은 "워크숍이 연례행사이지는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학년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중요한 자리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동해중학교=오영주 교사



"부처님의 지혜로 정진하겠습니다."

종합 동해중학교 교사불자회 송년법회 봉행

종합 동해중학교 교사불자회(회장: 아무개) 송년법회가 지난 12월 23일 송인근 교장을 비롯한 김진희 교감 등 불자회 교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법선사에서 법선 정사 집공으로 봉행되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동해중학교 내 동해사에서 법회를 열어오던 교사 불자회는 현재 새롭게 단장 중인 법선사 서원당을 찾아 한해를 마무리하며, 경자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정진하기를 발원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시장작 강의를 했다. 12주 강의하는 동안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옷을 바꿔 입었다. 1주차에는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안고 들어온 젊은 엄마도 있었다. 아기를 바꾸기로 한 자원봉사자가 늦는 바람에 일단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던 것. 11주차에는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들어온 젊은 엄마가 힘들어해 강의 후반 20분쯤 아이를 안고 시를 읽었다. 마지막 강의는 시와 더불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장작의 이해' 프레젠테이션 강의 후 백지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 열 가지'를 써 달라고 했다. 가족이라 뭉뚱그려 쓰지 말고 아버지-어머니-아이 등 구체적으로 쓰라 했다. 조금 느긋하게, 열 가지를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지금부터 그중에서 덜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지워보세요." 열 가지 중 세 가지를 지워도 일곱 가지가 남아선지 다들 어렵지 않게 지웠다. 다시 말했다. "그중에서 다시 세 가지를 지워보세요." 맨 앞의 젊은 엄마는 망설임 없이 지워나갔다. 뒤에 앉은 젊은 엄마들은 조금 망설이더니 천천히 세 가지를 지웠다. "이제 네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를 더 지워보세요." 여유가 있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망설이는 빛이 역력했다. 소중한 것 열 가지 중에 벌써 여덟 가지를 포기했다. 그들은 남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내 얼굴을 바라볼 때까지 틈을 틈다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지우세요" 했다. 이미 짐작하고 있어 선지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가장 빨리 결정한 맨 앞의 젊은 엄마에게 물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건강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지웠나요?", "사랑과 행복이요.",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지요." 그가 적는 것에 사람은 들어 있지 않았다. 뒤에 앉은 젊은 엄마들은 예상대로 '아기'를 남겼다. 지금 이 순간 아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 난 천천히 아이들을 키운 경험을 들려주었다.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결혼도 안 하려고 했고, 결혼해서는 아이를 안 낳으려 했는데 돌씩이나 낳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로 인해 기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아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다는 지금의 그 마음 잊지 말고 살라"는 뻔한 말로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한 사람, 쓰면서도 지우면서도 많이 망설이던 젊은 엄마 차례였다. "무엇을 남겼나요?", "남동생요." 전혀 뜻밖의 대답에 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물었다. "누구라고요?", "한 살 어린 남동생요.", "아이가 아니지요? 그러면 아이는 언제...", "마음은 아이를 남기고 싶었지만, 현재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건 남동생이러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가 됐다. 젊은 엄마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누군가에게 위로 받고 의지하고 싶을 때 남동생이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엄마 모두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는 순위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자의든 타의든 자식이 임신을 했다면, 부모는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부모인 것이다.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날 밤, 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것 열 가지를 말해보시오.' 아내, 자식, 건강, 사랑, 행복, 돈, 시, 책, 여행, 친구. 젊은 엄마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중에서 세 가지, 다시 세 가지, 마저 두 가지를 지웠다. 회가 거듭될수록 심적 압박감이 대단했다. 친구를 치울 때는 관계를 단절하는 듯했고, 사랑을 지울 때는 사람이 사라지는 듯했다. '아, 난 젊은 엄마들에게 너무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구나!' 뒤늦게 후회하고 많이 반성했다. 내가 남긴 한 가지? 그저 웃지요. 시인 김정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1월 21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개천사, 건화사, 관성사, 관음사, 기로소스, 동해사, 밀인사, 법천사, 법천사.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범향사, 벽룡사, 사원명무기명, 선림사, 수계사, 수인사, 실보사, 실지사, 운천사, 일원어린이집.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자석사, 참원햇살어린이집, 정각사, 정심사, 지인사, 초록어린이집, 총지사, 총지신문, 포레스타7어린이집, 화음사, 흥곡사, 힐스어린이집.

“팔죽 한 그릇 들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정각사, 수인사, 팔죽 나눔으로 훈훈한 동지 나기



정각사(왼)와 수인사(오) 교도들이 직접 팔죽을 끓여 이웃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전운호 시인의
봄다와 문학



시인 전운호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섬섬하게,
그러나
아조 섬섬치는 말고
좀 섬섬한 듯만 하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엇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미당은 굴곡진 삶의 행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들은 모국어로 쓰여진 가장 뛰어난 작품들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 시를 쓰는 후배인 나 역시 그의 얼룩진 삶에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까지 고통스럽지는 않다.

연꽃을 만나러 가는 바람과 연꽃을 만나고 오는 바람은 어떻게 다를까? 그것은 섬섬하게 아조 섬섬치는 말라는 다음 구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연꽃 만나러 간 일이 다 잘 된 게 아닌 것이다. 여기서 연꽃은 연인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다. 이리 저리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그것이 시이다.

그러므로 이별도 영이별이란 없고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는 이별이다. 전생과 내생을 말하는 것은 부처의 어법이다.

무언가를 꼭 짚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바람처럼 그저 슬쩍 지나치면서 서운한 듯 그렇지 않은 듯 옅은 웃음을 보이는 것, 그게 가장 지극한 사랑의 경지임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나도 당신에게 그런 바람이고 싶다. 그대가 어떤 답을 내리던 상관 없이 담담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인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싶다.

그리고 보니 우리 말에서 바람은 무언가를 바란다는 바람과 같은 말이다. 바라는 일이 있다면 바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선조들의 훈수가 아닐까?

친일과 독재 미화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사창가에서 평생을 허비한 보들레르도 무솔리니를 위해 미군에게 항복 방송을 한 에즈라 파운드도 시는 남았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작은 설 동지를 맞아 다함께 팔죽을 끓여 나누어 먹는 행사가 각 사원마다 열리는 가운데, 부산 정각사(주교: 법경 정사)와 포항 수인사(주교: 법일 정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열었다.

정각사는 동지인 지난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각사 앞 대로변에 팔죽 나눔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웃과 함께 하는 지혜로

운 세시풍속을 이어갔다. 특히 사거리 에 정착해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팔죽을 나눴다.

정각사 신정회 정인숙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교도들이 일찍부터 팔죽을 끓이고, 직접 나눔 행사까지 펼쳤다. 정인숙 회장은 "이곳을 지나던 택시 기사님들이 특히 팔죽을 받고 좋아하셨습니다. 집에서 팔죽을 끓이지 않다보니 동지를 잊고 지날 뻔했는데 너

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며 소회를 밝혔다.

매주 자성일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 이웃에 조건 없는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수인사도 동짓날 자성일에 맞춰 팔죽을 나누며, 수인사를 찾아온 이웃과 함께 새해 행복을 서원했다. 지난 김장 김치 이웃 나눔에 이어, 이번 동지에도 팔죽 도시락 600개를 만들어, 수인사 무료급식자와 무료반찬 배달 급식자

들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법일 정사는 "수인사 교도들은 이제 무엇이든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서 자발적인 보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붉은 팔죽을 함께 나누며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경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인사했다.

BOOK 소리

연꽃마을 이사장 원상스님, 미소를 부르는 작은 깨달음 <토굴가>발간

열아홉살 행자에서 출가 34년, 연꽃마을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깊은산 토굴에 살면서 떠올린 지난 날의 추억들...

열아홉살 행자에서 출가 34년, 연꽃마을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원상스님의 마음속 잊지 못할 장면들을 만난다!

연꽃마을 이사장 원상스님이 미소를 부르는 작은 깨달음 <토굴가>를 발간했다.

이 책은 원상스님이 일상에서 겪어온 일화와 소소한 감상에서부터

은사스님인 덕산당 각현스님의 뒤를 이어 70여개 시설 1700여명의 정직원과 2500여명의 계약직 직원을 거느린 한국 5대 복지시설 책임자로서 자비상상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까지 모두 아우른 글 모음집이다.

'내 삼십년전에 중이 되어서 아직까지 중이요. 그러니까 삼십년을 풀는 중이만 말이요. 그렇다고 너무 떨지 마요. 늘 불의 앞에서만 머리털을

세운 중이니가 말이요.'

-중이 중에서

원상스님은 "화두를 들고 마당에서 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보고. 이런 패턴으로 죽 살아왔어요. 어느날부터 문득 떠오른 생각 조각을 모은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원상스님은 요즘 화두는 '연꽃마을'이다.

원상스님이 이끄는 연꽃마을은 5년전 입적한 각현스님의 유지를 받



들어 법인 1호 시설인 용인전문요양원 옆 천혜의 요지에 법인사무처와 큰스님 기법관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큰스님 사리탑인 연꽃탑을 조성하여 백년대계를 꿈꾸고 있다.

이 책은 원상스님이 스승 각현스님의 뜻을 이어 연꽃마을을 재도약시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복지재단 임직원 일동

만다라요양원/일원어린이집/잠원햇살어린이집/초록어린이집/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양지1동복지회관어린이집/아동회관어린이집/벗고을어린이집/힐스어린이집

창교절 특집기획

“종단 발전과 교화 발전에 더욱더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1972년 12월 24일 종조 원정 대성사는 불교총지종 입교개종을 하고, 한국에 밀교종단으로 관세음보살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흠과 준제진언으로 교화하는 불교총지종을 천하에 선언한 날이다. 종령 범공 예하는 제 47년 창교절을 맞아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되새기고, 초발심의 자세와 정진의 환희심으로 회향하자.”며, ‘입교개종의 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창교절을 맞아 통리원에서는 교화 발전에 모범을 보인 각 사원의 교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각 사원에서 보내온 영광의 수상자를 화보로 구성해 보았다.

<편집자 주>



법천사 전 주교 법경 정사와 김정숙 교도



실지사 주교 덕광 정사와 보경(진천대일) 교도



벽룡사 주교 승원 정사 양재범 교도



총지사 주교 원당 정사와 이정수 교도



만보사 주교 안성 정사, 유가해 전수와 배정임 교도



수인사 주교 법일 정사, 자행정 전수와 박금화 교도 외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와 최점주 교도



화음사 주교 우인 정사와 강순란 교도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보이스피싱 대처, 경찰서 표창 수여

단음사(주교: 남해 정사) 전명환 교도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영천새마을 금고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을 막아 지난 12월 12일 경북 영천경찰서 서장으로부터 표창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여직원의 슬기로운 대처로 피해를 막았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권순복 = 단음사 통신원



자석사 여순애 교도 차와 다식 공양

지난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자석사(주교: 도우 정사)는 어느 때 보다 많은 분들이 기념 범회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팔죽 공양 후 여순애 교도가 차와 다식을 손수 준비해 참여한 교도들이 답소를 나누며 더욱 행복한 동지를 보냈습니다. 보살행에 감사드립니다. 지현 전수 = 자석사



범음으로 창교절 봉축하다, 운천사

창교절을 맞아 지난 12월 24일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에서는 부림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었습니다. 이날 부림합창단은 ‘해인절 노래’, ‘마하비로자나 부처님’, ‘총지종의 노래’로 서원당을 범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진숙, 박미광 = 운천사 통신원



대형 율놀이 판에 함박 웃음 정각사

정각사(주교: 범경 정사)는 지난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정각사 다도반에서는 차와 다식을 공양하고, 바벨 연주단의 연주, 퀴즈 맞추기와 대형 율놀이가 진행되어 즐거운 창교절을 맞이했습니다.

한미옥 = 정각사 통신원



어울림소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건화사 류순옥 교도 자녀 최윤정 양 공무원 6급 공진시험 합격

관성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합격

이상희, 이영미 교도 자녀 이주원 양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과 합격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관성사 박영자 교도 마포방송국 공로상 수상

총지스케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월초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인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애'에 의한 진인 '흠졸야호사'로써 국민안만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종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황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화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회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불교총지종**

**경자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통리원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원당	관성사 주교 인선	관음사 주교 정인화	개천사 주교 법등	만보사 주교 안성
재무부장 덕광	밀인사 주교 록경	단향사 주교 지홍	건화사 주교 법상	백월사 주교 해광
교정부장 승원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혜안정	법황사 주교 법우
사회부장 지정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중원사 주교 정정심
총무원 일동	시법사 주교 서강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립사 주교 도관	혜정사 주교 진일심
	실지사 주교 덕광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수현	흥국사 주교 지정
중앙총의회	지인사 주교 승효제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일	
사감원	총지사 주교 원당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원의원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시정	
총지종 유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경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우인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학교법인 동해중학교				

